

日 여행 기피 확산... 무안공항~일본 항로 모두 막혔다

제주항공, 도쿄·오사카 노선 26일부터 예약 중지 궤·중국 신규 노선 확보 100만 이용객 달성 주력

일본의 경제보복 이후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무안국제공항과 일본을 잇는 하늘길이 모두 막혔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주 4회 운항하던 제주항공의 무안공항을 오가던 도쿄 나리타·오사카 간사이 노선이 오는 26일부터 예약을 중지한다.

제주항공의 두 노선은 올해 상반기 주 7차례 매일 운항했으나 일본 경제보복 이후 하반기부터 이용객이 급감하면서 주 4차례로 운항 횟수를 줄였다. 해당 항공사는 관공비수기인 동절기를 앞두고 결국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 올해 상반기 일본 기타큐슈·오이타-

후쿠오카 노선이 차례로 폐쇄된 데 이어 도쿄와 오사카 노선까지 결국 중단됐다. 올해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에 '노 재팬(No Japan) 운동'이 확산되기 전과 비교하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중 일본 노선 이용객이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실제로 제주항공의 일본 노선 탑승률은 올해 상반기 도쿄는 평균 51%, 오사카는 평균 78.8%에 달했지만, 9월 탑승률은 도쿄 29.9% 오사카 25.2%까지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무안공항 국제선 이용객 수는 35만8000여명으로 이중 일본 노선 이용객은 1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무안공항 이용객 비중이 컸던 일본 노선 운항중단으로 올해 목표도 삼았던 무안공항 이용객 100만명 돌파에도 찬물을 끼얹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만회하기 위한 신규노선 확대 등 다변화를 꾀하고 있다. 신규노선은 도쿄 29.9% 오사카 25.2%까지

중국엔지(延吉)노선과 장자제(張家界) 신규 노선을 취항한 데 이어 다음달 초 중국 하이난 산야 노선·12월 광 노선도 취항할 예정이다. 필리핀 국적 항공사인 팬퍼시픽항공도 오는 12월 22일부터 무안과 필리핀 휴양 도시인 클락을 잇는 직항 노선을 주 2회(목, 일) 취항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국제노선 다변화를 통해 올해 목표인 무안공항 100만명 이용객 달성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이코노미 플러스



체코 축구구단과 후원계약 금호타이어, 3년간

금호타이어는 체코 명문 축구구단 FK 므라다볼레슬라프와 2021~2022 시즌까지 3년간 글로벌 공식 타이어 파트너로서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FK 므라다볼레슬라프 홈구장인 체코 므라다볼레슬라프 메스츠키 경기장에서 진행된 조인식에는 김인수 금호타이어 OE영업담당 상무와 조셉 두팩 FK 므라다볼레슬라프 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계약을 통해 FK 므라다볼레슬라프의 공식 파트너로서 선수 유니폼 상의 뒷면과 하의 앞면, 홈구장에서 열리는 리그 경기 중 LED 광고, 홈페이지 등에 금호타이어 브랜드를 노출하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체코 뿐만 아니라 자동차 강국인 독일 등 유럽 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뉴스

초소형 전기차 우편배달 우체국, 내달부터

11월부터 초소형 전기차 1000대가 우편물을 배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현대캐피탈과 초소형 전기차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달부터 연내까지 전국 우체국에 초소형 전기차 1000대를 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초소형 전기차는 국내에서 조립·생산해 안전·환경인증을 통과하고 국내산 배터리를 장착했다. 임차기간은 5년이다.

우편은 초소형 전기를 배달 현장에 운영해 이륜차 안전 사고를 줄이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소포·택배가 증가하는 우편 환경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 배터리 국산화를 시작으로 주요 부품에 대한 국산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관련 시장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관측된다.

우편은 2017년 12월 우편배달 환경에 적합한 초소형 전기차 도입을 위해 외부 전문가 등으로 테스크포스팀(TF)을 구성하고, 전기차 구매 가격 지원을 마련했다.

백간재 기자

'정기예금 최대 연 1.80% 필드매니저 전용상품 출시

광주은행-해피니스CC 협약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21일 나주시 해피니스컨트리클럽에서 F.M.(필드매니저) 전용상품 출시와 함께 해피니스컨트리클럽과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F.M.(필드매니저) 전용상품인 정기예금·적금, 신용대출은 소득증빙에 어려움이 있어 금융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필드매니저를 대상으로 한 특화 상품으로 자동이체,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른 정기예금·적금 우대금리와 신용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F.M.(필드매니저) 정기예금은 1년 만기로 100만원~1억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기본금리 연 1.20%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평잔에 따른 우대금

리 최대 0.40%p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20%p를 제공해 최대 연 1.8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F.M.(필드매니저) 정기적금은 1년 만기 월납입액 1만원부터 3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50%에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를 통한 정장 자동이체 건수에 따라 우대금리 최대 연 0.20%p △신용카드 월평균 사용금액 10만원 이상인 경우 연 0.20%p를 제공해 최대 연 1.90%의 금리를 받을 수 있다. F.M.(필드매니저) 신용대출은 현재 근무하는 골프장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무한 필드매니저를 대상으로 신용등급 조건 충족 시 소득자료 없이 최대 500만원까지 최대 연 6.3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백간재 기자



롯데백화점, 양털신발 출시

롯데백화점 광주점 2층 어그(UGG)매장에서는 양털 신발을 선보이고 있다. 양털 신발은 천연 양털소재로 만들어져 보온이 뛰어나며 착화감이 좋아 겨울철 포인트 아이템으로 인기가 높다.

롯데 광주점 제공

금융사기이용 계좌 36만개... 국민은·농협 최다

2011년부터 8년간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등 사기건에 이용된 계좌가 36만5508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에선 국민은행, 상호금융은 농협 계좌가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만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21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른 사기이용계좌 현황'을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융사기건에 이용된 계좌는 집계를 시작한 2011년 1만7357개에서 지난해 5만9873개에 이르러 3.5배 가량 늘어났다. 이 기간 피해

액은 424억원에서 4355억원으로 10배 증가했다. 매일 125개의 계좌가 사기건에 이용되고 하루 평균 5억5000만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셈이다. 지난 8년 간 시중은행 가운데 국민은행 계좌 5만1992개가 사기건에 이용됐다. 신한은행(3만5142개), 우리은행(3만1004개), 하나은행(2만8791개) 등이 뒤따랐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농협이 8만161개로 가장 많았고 새마을금고(2만7143개), 우체국(2만4344개) 등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1년 1만7357개 △2012년 3만3769개 △2013년 3만8899개 △2014년 6만8692개 △2015년 5만6191개 △2016년 4만5726개 △2017

년 4만5001개 △2018년 5만9873개 등이었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 급증을 방지하고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신고포상금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현장조사와 사기이용계좌 개선계획 제출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강화하고 모니터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 장 의원은 "사기이용계좌 전체의 80%를 차지하는 4개 은행과 상호금융 1곳은 현장조사와 개선계획 제출대상에 해당된다. 하지만 남은 20% 계좌의 은행은 2018년 기준 사기이용계좌 수 1만6045개, 피해액 1238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성인남녀 10명 중 6명 "유튜버 꿈꾼다"

성인남녀 10명 중 6명이 '유튜버'를 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플랫폼 사람인(대표 김용환)이 성인남녀 35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3%가 유튜버 도전 의향을 밝혔다. 연령대별로 20대가 70.7%로 가장 높았고, 30대(60.1%), 40대(45.3%), 50대 이상(45.1%) 순으로 나타나, 연령대가 낮을수록 유튜버 도전 의향이 컸다. 남성(65.2%)이 여성(61%)보다 유튜버 도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유튜버를 하고 싶은 이유로 '관심 있는 콘텐츠가 있어서'(48.1%,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

다. 이밖에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33.3%), '미래가 유망할 것 같아서'(25.3%), '직장인 월급보다 많이 벌 것 같아서'(22.2%), '말씀씨 등 관련 재능이 있어서'(20.4%), '주위에서 많이 도전하는 것 같아서'(13.3%), '취업보다는 쉬울 것 같아서'(10.2%),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서'(7.5%) 등의 의견이 있었다. 유튜버를 본업으로 할 생각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도전 후 고민하겠다'(31.8%)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부업'(30%)이 바로 뒤를 이었다. '취미'로 하겠다는 답변이 28.1%였으며, '본업'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10%에 불과했다.

뉴스

문암이앤알(주)

태양광 발전소 분양

- ✓ 100% 시공계약이행보증
- ✓ 분양,시공,인허가 토탈건설팅!!
- ✓ 월 평균수익 250만원 예상!! (100kW 기준)
- ✓ 투명하고 합리적인 분양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진곡산단중앙로 274
TEL: (062)714-3471 FAX: (062)714-3472